

## ‘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 2025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 심의 결과 발표 -

2025년 재허가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금강방송(주)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2025년 재허가 대상인 이번 두 개 방송사에 대한 심사는 당시 유료방송 소관 부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6월 실시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600점 만점)을 상회한 반면, 푸른방송은 275.5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강방송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25.8.29.~’32.8.28.)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및 투자계획 이행 등 5개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개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기준점수에 미달한 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책임자	과 장	강동완 (02-2110-1610)
	뉴미디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진수 (02-2110-1617)